

장흥 노력도 개발사업 지지부진...선망선단 놓칠라

〈고등어잡이〉

국비 짊어 지원에 방파제·일주도로 등 '하세월'...선단 유치 차질 우려
대형 선망 선사들 "물류비 절감·선도 유지 최적...노력항 조기 개발을"

전남 연안 선망어업(고등어잡이) 선단 거점 전진기지 구축을 위해 장흥 '노력항' 개발이 앞당겨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일 장흥군에 따르면 연간 2000억원대 위판고를 기록하며 부산시 수산시장 경제를 움직이는 고등어잡이 대형선망선사 유통법인이 지난 4월 장흥 노력항 유치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현행 고등어 조업어장은 제주도 및 거문도해역에서 전국 어획량의 80%를 차지한다.
장흥 '노력항'이 선단 거점어항이 되면 물류비용 52% 절감 효과와 선도 유지 상위급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망어업 선사들이 노력항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흥군은 선망어업 선단 전진기지 경매를 위한 제방공장, 선별장, 급냉시설 등 노력항 인프라 구

축을 위해 여수항만청과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절차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장흥군은 6척 어선(1통)으로 구성된 고등어선단을 우선 올해 내 노력항에 입항시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부터 시행 중인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국비 지원이 줄어들면서 지지부진하다. 일주도로와 방파제, 선착장 등 제반 시설이 취약해 자칫 선망어업 선단 전진기지 유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노력도 종합개발사업 진척을 살펴보면 1차분부터 20차에 걸쳐 일주도로 6645m 가운데 5885m만 개설된 상태다.
특히 동-서로 나눠진 총 방파제 410m 가운데 을 해까지 동방파제 150m만 조성되는데 그쳐, 방파



해양수산부의 '노력도 도서종합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장흥 노력항 선망어업 선단 거점 전진기지 유치가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사진은 '노력도 종합개발 사업' 중 일주도로 공사 현장.

제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장흥군은 해양수산부가 주도하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함에 따라 군비 100억원을

투입해 물양장, 급냉시설, 선별장, 제방공장 등을 우선 구축하기로 했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장 kykim@

온라인 빅데이터 2만849건
강인규 나주시장 전남 1위

나주시는 강인규 시장이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가운데 온라인 정보량 조사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다.



빅데이터 분석 기관인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뉴스·블로그·트위터·페이스북 등 온라인 정보량을 조사한 결과 강 시장은 총 2만849건을 기록해 전남 단체장 중 가장 많았다.

강 시장은 지난해 7-9월(3분기) 조사에서도 정보량(6975건)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는 강 시장의 시민소통 정책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이자 각종 포털사이트·SNS 등 온라인 시정 홍보의 역량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나주시는 분석했다.

코로나19에 대응한 철저한 방역 관리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방면의 시책 홍보가 주요했다는 판단이다.

강 시장에 이어 권오봉 여수시장(2만76), 구충곤 화순군수(1만6451), 허석 순천시장(1만6195), 김준성 영광군수(1만5235) 등이 상위 이름을 올렸다.

나주시는 인구수 대비 정보 점유율에서 다른 지자체를 압도적으로 앞질렀다.

강 시장은 "코로나19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경제 지원을 비롯해 일상 속 시민의 행복과 안전을 보장하는 유익한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on@kwangju.co.kr



화순군 도곡면 '세계거석테마파크'에 재현된 칠레 이스터섬 모아이 석상.

〈화순군 제공〉

'모아이석상' 재현...화순에 '세계거석테마파크' 준공

선사체험장·오토캠핑장 등 주변 관광자원 연계 체험·학습 공간 활용

화순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고인돌 유적지 일대에 '세계거석테마파크'를 조성했다.
고인돌 유적지 선사체험장과 연계한 체험·학습 공간으로, 세계의 대표적인 거석 조형물을 원형과 비슷하게 제작해 세계 대표 거석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원이다.
화순군은 고인돌 유적지가 있는 도곡면 효산리 일대에 세계거석테마파크를 준공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년 간 추진한 결과물이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칠레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세네갈비아 환상열석까지 총 7개국 거석 조형물을 원형에 가깝게 재현했다.

또 영국 최대의 환상열석 스톤헨지와 볼리비아 태양의 문, 괄 라테스톤 등 10개국의 거석문화 해설 안내판을 설치해 각국의 다양하고 독특한 거석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하고 이해하는 문화공간으

로 꾸몄다.

화순군 관계자는 "세계거석테마파크와 고인돌 오토캠핑장, 고인돌 선사체험장 등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해 선사시대 거석문화의 메카로 만들겠다"며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다양한 활용 사업, 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영산포구 옛 명성 되찾자"... '영산포읍' 승격 추진

협의회 워크숍, 지역발전 방안 논의

나주 영산포구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해 '영산포읍 승격'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1일 나주시에 따르면 영산포발전협의회는 지난 29~30일 이틀 동안 나주에서 운영위원장 워크숍(사진)을 갖고 영산포읍 승격 등 지역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창동과 영산동, 영강동을 하나로

묶는 '영산포읍' 승격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영산포 원도심에 공원 조성, 영산포와 왕곡면 중심 국가산단 배후도시화 추진 등 활동도 진행할 계획이다.
조선 초기 영산포는 영산강의 수운을 이용해 남부지방의 전세(논밭에 부과되는 조세)를 거둬 영산창에 모았다가 서울로 다시 운반하는 조운기능을 수행했다.



내륙 수운의 중심지로 문전성시를 이루 한때 인구가 3만명을 웃돌 정도로 특유의 내륙포구 문화를 형성해 번영을 누렸다. 1927년 영산포읍으로 승격

했다.

하지만 1960년대까지 포구 역할을 수행했던 영산포는 철도교통과 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의 발달과 상류 담 건설에 따른 유량의 감소, 토사 퇴적 등으로 항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

1981년 나주군 나주읍과 병합돼 금성시가 됐고, 1986년 나주시로 변경됐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함평군 친환경쌀 재배농가
제조용 왕우렁이 74t 공급

함평군은 본격적인 모내기철을 맞아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제조용 왕우렁이 74t을 공급한다고 1일 밝혔다.

왕우렁이 농법은 제조용 대진 왕우렁이의 초식 특성을 이용해 잡초를 제거하는 친환경 농법이다.

논 썩레질 직후 왕우렁이를 논에 골고루 뿌려주면 파·물달개비 등 일반잡초는 물론 제조용에 내성을 가진 슈퍼잡초까지 99% 이상 제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함평군은 총 사업비 7억3700만원을 투입해 4145농가 6202ha에 벼농사 제조용 왕우렁이 74t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라 각 농가별로 별도의 왕우렁이 차단망을 설치해야 한다.

계속된 기후온난화로 왕우렁이의 월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호수·하천 등으로 유입된 왕우렁이가 토종우렁이의 개체수를 위협하면서 관련 지침이 변경됐다.

/함평=황운학 기자 hwang@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